

국제통화기금(IMF), 인도 GDP성장률 6.1%로 하향조정

(2012. 7. 27)

뉴델리사무소

□ 국제통화기금(IMF), 인도 경제성장률 6.1%로 하향 조정

○ 국제통화기금(IMF)은 세계 경제전망(World Economic Outlook) 보고서를 통해 유럽발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밝히며, 인도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6.8%에서 6.1%로 하향 조정함

- 인도의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의 주된 원인은 인도중앙은행(RBI)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내수침체 및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한 수출부진이 지목됨

IMF World Economic Growth Forecast

Year of year	Year of year		Projection		Difference	
	2010	2011	2012	2013	2012	2013
World Outlook	5.3	3.9	3.5	3.9	-0.1	-0.2
미국	3.0	1.7	2.0	2.3	-0.1	-0.1
Euro	1.9	1.5	-0.3	0.7	0.0	-0.2
개발도상국 평균	7.5	6.2	5.6	5.9	-0.1	-0.2
러시아	4.3	4.3	4.0	3.9	0.0	-0.1
중국	10.4	9.2	8.0	8.5	-0.2	-0.3
인도	10.8	7.1	6.1	6.5	-0.7	-0.7
브라질	7.5	2.7	2.5	4.6	-0.6	0.5
남아공	2.9	3.1	2.6	3.3	-0.1	-0.1

자료 : WEO projections, 2012. 4월

○ IMF는 “신흥국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수출감소 및 자본흐름의 고(高)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.”고 밝혀 향후 신흥국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힘

- 그러나, 인도정부의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금번 미국 및 유럽의 경제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여전히 강한 경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음을 피력

자료원 : World Economic Outlook 등